



[금융]
금융지주 주총 개막
교수·관료 지고
IB·회계사 뜬다
04



Life

[산업]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기업 탈바꿈
'정의선의 뉴현대'
05



김구 등 8인 애국지사 잠든 곳... 추모·기억의 공간



지난 3일 효창공원을 찾은 한 시민이 정문 앞에서 쉬고 있다.

되살아나는 서울

4 용산구 '효창공원'

안중근 의사 등 8명 독립운동가 안치 독립운동 성지에 맞지 않은 시설 많아 임정 100주년 맞아 독립공원화 추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은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암살됐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효창공원에는 김구 주석을 포함해 총 8명의 독립운동가가 안치돼 있다.

원래 조선왕실의 묘역이었던 효창공원은 정조의 맏아들 문효세자와 생모인 의빈 성씨의 묘, 순조의 후궁인 숙의 박씨의 묘가 있던 능원으로 효창원이라고 불렸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문효세자의 묘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삼릉으로 옮기고 효창원의 이름을 효창공원으로 바꿔 민간에게 개방했다.

해방 이후 김구 선생 주도로 효창공원에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마련됐다. 현재 효창공원에는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총 8명의 독립운동가가 잠들어 있다.

◆살신성인 정신 되새기는 장소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난 3일 용산구에 위치한 효창공원을 찾았다. 효창공원 정문 안으로 들어섰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인 건 이봉창 의사의 동상이었다. 수류탄을 던지려고 하는 모습이 형상화돼 있었다. 이봉창 의사는 1932년 1월 일본 도쿄에서 신년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일본 천황 히로히토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다. 천황 폭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봉창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돼 사형됐다.

마포구 공덕동에서 사는 강명식(74) 씨는 "효창공원에는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애국지사들이 묻혀있다"면서 "김구 선생뿐만 아니라 이봉창, 백정기 의사도 있는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한숨



효창공원에 설치된 이봉창 의사 동상 모습.



3일 효창공원을 찾은 한 시민이 삼의사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을 쉬었다. 효창공원에는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등 삼의사와 임시정부 요인인 조성환, 차이석, 이동녕 선생의 유해가 안치돼 있다. 정문에서 동쪽으로 30m 떨어진 곳에 임시정부 요인 묘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2분 정도를 더 걸어 올라갔다. 삼의사 묘가 보였다.

삼의사는 김구 선생에 의해 이곳에 봉환 안장됐다. 삼의사 묘 왼쪽에는 1910년 중국 뤼순 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가묘

도 있었다. 이날 효창공원을 찾은 시민 박모(34) 씨는 "아이들과 함께 역사 공부할 겸 해서 왔다"면서 "묘만 덩그러니 있어 애들은 별 감흥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씨는 "근데 여기가 애국지사들이 안치된 곳 맞냐"며 "독립운동과 별 상관 없어 보이는 원효대사 동상도 있고 북한 반공투사 위령탑도 세워져 있다"며 고개를 가웃거렸다. 효창공원에는 원효대사 동상, 반공기념탑, 대한노인회 중앙회 등 독립운동 성지

에 걸맞지 않은 시설이 상당수 설치돼 있었다.

◆체육시설에 가로막힌 독립운동가 묘역

1956년 정부는 효창공원 내 독립운동가 묘를 이장하고 효창운동장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해 6월 국회에서 김두한 의원은 "선열에 대해서는 물질 보다는 추모의 정신으로 보답해야 한다"며 공사 중지를 요구했다. 양일동 의원은 "과거 선열들은 누구에게 학대를 당했으며 지금은 또 누구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냐"며 "정부에는 친일분자가 많다. 효창공원 운동장 설치 지시자를 조사해 처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효창운동장 공사는 강행됐다. 독립운동가 묘역은 2만7593㎡ 규모의 체육시설에 가로막히게 됐다.

청파동에 거주하는 정길진(72) 씨는 "동네 주민이어서 날마다 공원에 산책하러 나온다"며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에서 편하게 운동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원에서 만난 송모(69) 씨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독립운동 기념공원 때문에 운동장이 없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주민 편의시설은 철거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효창공원을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성역화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 선생을 포함해 여덟 분의 독립유공자가 안장돼 있으나 독립유공자의 정신이 깃든 공간이 아닌 한낱 공원으로 방치돼 있다"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효창공원을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재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보훈처는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연구용역 등 독립공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